

# 도시빈민과 임대차 확대

최일섭\*\*

|                  |                 |
|------------------|-----------------|
| I. 머리말           | 3. 경제생활과 빈곤의 실태 |
| II. 도시빈민의 실태와 욕구 | 4. 주거문제 및 주거이동성 |
| 1. 인구학적 특성       | 5. 도시빈민의 사회의식   |
| 2. 도시 빈민의 직업활동   | III. 맺음말        |

## I. 머리말

본고에서는 필자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했던 1989년도 서울시 저소득층 실태 조사의 결과를 중심으로 도시빈민의 실태와 욕구를 분석,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 조사연구에 대한 개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조사기간 : 1989년 4월중
- 조사방법 : 조사원의 가구방문에 의한 직접 설문조사
- 조사지역선정 : 서울시의 '저소득층 밀집지역 현황'자료에 근거하여, 전체 105개 지역중 400가구 이상 밀집지역 31개동, 33개 지역을 선정.
- 조사대상자 선정 : 전체 조사대상가구 3,000가구 중에서 먼저 생활보호대상 가구와 기타 저소득가구를 1 : 1의 비율로 배분한 후, 생활보호대상 가구는 가구수 비율에 따라 거택보호 : 자활보호 : 의료부조가구를 1 : 4 : 2의 비율로 배정하였다. 최종조사대상가구의 선정은 동사무소의 생활보호대상가구 현황자료에 근거하여 무작위표집하였다.
- 응답자 : 세대주를 원칙으로 함.
- 유효표본 : 총 3,000가구 중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부적합한 케이스를 제외 후 최종분석에 사용한 표본수 및 구분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거택보호 | 자활보호 | 의료부조 | 기타저소득 | 전체    |
|----|------|------|------|-------|-------|
| 표본 | 220  | 841  | 423  | 1,491 | 2,975 |

\*이 논문은 1989년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바 있음.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한국산업경제 연구원, 서울시 저소득층 실태과악과 대책수립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1989.

한편 본 조사의 내용은 기존의 빈민실태조사들과<sup>2)</sup> 본질적으로 유사한 조사로서 다음과 같은 성격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기존의 조사들은 대부분 생활상태론적 접근방식에 근거하여 가계, 주거, 문화생활 등 주거공간에 있어서의 소비생활을 중심으로 조사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며, 도시빈민의 생산활동 및 계급구조 등과 연결된 총체적인 분석이 취약한 상태이다. 본 조사 역시 그러한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조사대상의 선정은 도시빈민 집단거주지역 주민에 국한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는 본 조사의 목적이 도시빈곤지역 주민에 대한 정책개선 방안 마련에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빈민의 욕구와 실태에 관한 통일적이고 객관적인 분석틀과 평가의 척도를 결여하고 있다.

넷째, 서울지역에 조사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전국적인 대표성에는 문제가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은 본조사 뿐만이 아니라, 1970년대 이후 시행되었던 대부분의 도시빈민 실태조사들에 공통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서 극복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본고에서 도시빈민의 실태와 욕구를 분석, 제시하고자 하는 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빈민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둘째, 도시빈민가구의 직업활동-(빈곤의 원인 또는 지속요인)

셋째, 경제생활의 실태-(빈곤의 정도)

넷째, 주택 및 주거환경의 실태-(대표적인 생활문제)

다섯째, 도시빈민의 의식구조

이와 같은 분석내용은 도시빈민의 생산활동 영역과 소비영역을 포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나아가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의 시계열적인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이들 빈민들이 빈곤을 탈피하고자 하는 욕구와 의식을 관심있게 조망하고자 한다.

2) 안해균 외, 저소득 시민의 생활실태에 관한 기초조사와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 1979.

서상목 외, 빈곤의 실태와 영세민 대책, 한국개발연구원, 1981.

홍기용 편, 도시빈곤의 실태와 대책, 단국대 출판부, 1986. 등

## II. 도시빈민의 실태와 욕구

### 1. 인구학적 특성

#### 1) 가구주의 연령, 가구원수, 여성가구주의 비율

〈표 1〉에서 볼 때 가구주의 연령은 거택보호에서 기타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낮아짐을 볼 수 있고, 가구원 수는 거택보호를 제외하면 비교적 일정수준을 보여준다.

여성가구주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20%정도인데 범주별로 차이가 심하지만, 서울시 일반가구의 여성가구주의 비율 16%(1985년 센서스)를 감안하면, 전체적으로는 4% 정도가 높게 나타난다.

〈표 1〉 인구학적 특성

| 구 분        | 거택보호자 | 자활보호자 | 의료무조자 | 기타저소득층 | 전체   |
|------------|-------|-------|-------|--------|------|
| 가구주 연령(만)  | 63.0  | 52.0  | 49.8  | 45.6   | 49.3 |
| 가구원수(명)    | 2.13  | 4.20  | 4.19  | 4.16   |      |
| 여성가구주비율(%) | 57.3  | 27.1  | 20.3  | 9.7    | 19.7 |

#### 2) 가구주의 교육수준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졸과 중졸을 합하면 전체적으로 73.7%에 달하고 있고, 반면에 대학출신자는 4%에 불과하다. 또한 생활이 어려울수록 저학력의 비중이 크다는 사실을 볼 때 이는 도시빈민과 저학력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2〉 가구주의 교육수준

단위 : %

| 구 분   | 거택보호자 | 자활보호자 | 의료무조자 | 기타저소득층 | 전체    |
|-------|-------|-------|-------|--------|-------|
| 국졸    | 79.1  | 56.7  | 50.4  | 32.2   | 45.2  |
| 중졸    | 13.2  | 27.5  | 33.3  | 30.0   | 28.5  |
| 고졸    | 6.4   | 13.5  | 13.9  | 32.0   | 22.3  |
| 전문대이상 | 1.4   | 2.3   | 2.4   | 5.8    | 4.0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2. 도시빈민의 직업활동

직업활동은 빈곤의 형성 및 지속에 있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본고에서는 가구주를 중심으로 직종 및 종사상의 지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직업활동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한편,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직업이동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 1)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와 변천

〈표 3〉에서 가구주의 종사상의 지위를 볼 때 임시고와 일고를 합한 비율이 33%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무직자(24.6%)의 비율을 합하면, 60% 가까운 가구주들이 취업의 불안정성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종사상 지위의 시계열적 변동을 살펴보면 상용고나 임시고 및 일고 형태는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고용주나 자영업자의 경우는 과거에 비해 지속적 감소를 보여주고 있어 약간의 하강이동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3〉 가구주의 종사상지위

단위 : %

| 종사상의 지위    | 현 재   | 5년전   | 10년전  | 20년전  |
|------------|-------|-------|-------|-------|
| 고용주        | 2.1   | 3.0   | 3.4   | 2.5   |
| 자영         | 13.0  | 18.5  | 20.2  | 22.5  |
| 상용고        | 23.8  | 23.9  | 23.3  | 17.5  |
| 임시고(6개월이내) | 8.5   | 8.9   | 7.8   | 5.3   |
| 일고(1개월이내)  | 24.5  | 26.7  | 23.4  | 17.3  |
| 무급가족종사자    | 0.5   | 0.2   | 0.3   | 0.2   |
| 무응답, 비해당   | 27.7  | 18.7  | 21.7  | 34.7  |
| 합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 2) 가구주의 직업분포

가구주의 직업 및 직종 분포를 직업의 안정성, 사회적 지위, 공식-비공식 부문에 따른 구분등을 감안하여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이 대략 3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각 직업군의 내용과 분포는 대략 다음과 같다.<sup>3)</sup>

<sup>3)</sup> 여기에서 열거한 각 직업들은 전체적인 분류를 위해 열거한 것이며, 조사대상자들 중에 각각의 직업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1군 (12.6%)

-전문, 관리-의사, 약사, 교사, 엔지니어, 5급 이상공무원, 장교, 사무원,  
사무직 중소기업 및 학원경영, 회사의 중간관리직, 은행원 3.8%

-단순사무직-육체노동에 근접한 주변적 사무직, 경리사원, 교환원 등  
하위사무직 1.6%

-자영업- 판매, 서비스, 제조기능, 도소매 상점주인, 음식점, 여관,  
당구장, 복덕방, 소규모제조업, 수리, 차주, 지주 등 7.2%

2군 (17.9%)

-생산, 기능직 근로자-숙련, 반숙련공과 일반 공장노동자, 운수노동자등  
(17.6%)

농어민- 0.3%

3군 (69.5%)

-영세자영업-영세상인, 영세기능인, 노점상, 행상 등 고정점포가  
없는 경우, 고물상, 증개상 등 6.7%

-판매·서비스-점원, 배달원, 외판원, 요리사, 이발사, 호텔종업원,  
노동자 간호보조원, 의항선원 2.7%

-단순서비스-낮은 기술수준과 단순노무,  
노동자 수위, 청소원, 파출부, 심부름, 캐디, 급사 등 5.5%

-단순노동-생산노동자 가운데 비숙련종사자와 단순 건축노동자 27.9%

-무직 24.6%

-기타 2.1%

가구주의 직업분포를 보면, 비공식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제3군이 70% 정도에 달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단순노동과 무직자의 비율이 52.5%임을 볼 때 취업의 불안정성이 도시빈곤의 대표적 원인임을 알 수 있다.

### 3)세대주의 직업이동

〈표 4〉는 과거와 현재를 통한 세대주의 직업이동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현재와 5년전을 비교할 때 현재의 직업과 5년전의 직업이 같은 비율은 전체적으로 50% 이상에 달하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생산기능직과 영세자영업 및 단순노동직은 70% 이상의 일치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직업이동이 활발하지 못하고 비교적 고착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하위직종일수록 더욱 그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10년전과 20년전의 경우는 5년전에 비해서 당연히 일치도가 떨어지고 있다. 직업이동 상황에서 볼 수 있는 특징 중의 하나는 하위직업군 내에서의 활발한 이동이다. 전체적인 고착성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이동성은 현재 가장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는 단순노동과 무직자 및 영세자영업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현재 무직자의 5년전 직업분포를 보면, 무직이 43.2%, 단순노동이 22.2%, 영세자영업이 7.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10년전에도 현재의 무직자는 무직 31.1%, 단순노동 20.8%, 영세자영업 10.7%의 구성을 보이고 있고, 20년전의 경우 역시, 무직 17.9%, 단순노동 20.4%, 영세자영업 13.1%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같은 비율은 다른 직업군들 사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높은 수치로서, 고용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직업들 사이의 활발한 상호이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상위와 하위직업군 사이의 이동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4〉 현재와 과거의 직업이 같은 비율 단위 : %

| 직업구분           | 5년전  | 10년전 | 20년전 |
|----------------|------|------|------|
| 1. 전문, 관리, 사무직 | 58.9 | 39.5 | 19.3 |
| 단순사무직          | 53.3 | 34.7 | 16.3 |
| 자영업            | 67.1 | 48.8 | 29.1 |
| 2. 생산, 기능직     | 71.9 | 57.6 | 25.0 |
| 3. 영세자영업       | 72.5 | 55.0 | 26.5 |
| 판매서비스          | 54.4 | 25.3 | 5.1  |
| 단순서비스          | 46.7 | 27.3 | 6.1  |
| 단순노동           | 77.0 | 59.6 | 37.1 |
| 무  직           | 43.2 | 31.1 | 17.9 |

#### 4) 직업활동에 있어서의 욕구

도시빈민은 자신의 노동력을 노동시장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자신에게 필요한 생활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만성적인 과잉인구의 존재로 인해 학력과 기술 수준이 저위에 속하는 도시빈민들의 취업기회와 보상수준은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빈민가구주의 약 70% 정도가 실업 및 직업활동에 있어서의 불안정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곧 도시빈곤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소득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안정된 직장을 확보하는 것이 이들의 가장 절실한 욕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들의 직업활동을 지원하는 제반시책(직업훈련, 취업알선 등)과 더불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을 정당하게 실현할 수 있는 건전한 노동시장의 형성이 도시빈민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정책과제라 할 것이다.

### 3. 경제생활과 빈곤의 실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도시빈민 가구주들은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도 취업의 안정성과 소득보장이 취약한 비공식부문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의 소득은 그 수준과 안정성에 있어 가족의 생계를 전담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대부분의 도시빈민들은 가족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득을 늘리거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법으로 생활을 이어가게 된다. 이제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도시빈민가구의 경제생활과 빈곤의 정도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 1) 소득과 지출

먼저 각 빈민범주별 가구주 소득 및 가구소득의 평균은 <표 5>와 같다. 여기에서 가구주 소득의 경우 30만원 이하가 63%에 달하고 있고, 가구전체소득 30만원 이하는 43.6%이다.

가구주의 소득이 전체 가구소득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거택보호에서 기타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증가하지만, 전체적으로 65.5%정도에 불과하여 나머지는 배우자나 가구원들의 소득을 통해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이들이 희망하는 월소득을 볼 때, 대부분의 가구들이 현재의 가구전체소득보다 많은 액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거택보호자의 경우 월 10만원 이상의 소득을 희망하는 가구가 77.7%, 자활보호가구의 경우 월 30만원 이상을 희망하는 가구가 73.9%, 의료부조가구의 경우 월 30만원 이상을 희망하는 가구가 83%, 기타저소득층의 경우 월 40만원 이상을 희망하는

가구가 63.6%, 전체적으로 월 30만원 이상을 희망하는 가구가 79.9%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보다 많은 소득을 원하는 가구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표 5〉 소득과 지출에 관한 사항

| 구 분         | 거택보호자  | 자활보호자   | 의료부조자   | 기타저소득층  | 전 체     |
|-------------|--------|---------|---------|---------|---------|
| A. 가구주월소득평균 | 35,700 | 135,000 | 174,100 | 276,700 | 204,000 |
| B. 가구전체월소득  | 82,000 | 238,700 | 290,600 | 400,700 | 311,500 |
| A/B(%)      | (43.5) | (56.6)  | (58.9)  | (68.1)  | (65.5)  |
| 월생활비        | 95,000 | 223,000 | 263,100 | 307,600 | -       |

## 2) 저축과 부채

다음으로 이들 빈민가구들의 저축과 부채 상황을 살펴보자. 빈민가구 중 저축을 하고 있는 가구는 28.4%로 나타나고 있고, 부채를 지고 있는 가구는 44.2%로 나타나고 있다.

저축을 하는 이유는 주거비마련이 49.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외 교육비(25.8%), 결혼비용(10.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채액은 50만원 미만이 61.6%로 나타나고 있지만 평균액은 보다 높게 나타난다. 평균부채액은 거택보호(564,900원), 자활보호(1,179,700원), 의료부조(1,155,500원), 기타저소득층(1,209,300원)으로 나타난다.

빚을 진 이유를 볼 때 생활비(28.8%)와 의료비(22.2%)같은 기본적인 지출로 인한 부채가 전체의 50%를 넘고 있으며, 그외 주택(16.5%), 사업비(13.9%), 교육비(13.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저축의 이유와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주택과 교육에 대한 부담이 저축과 부채 모두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생활곤란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원인

자신의 생활형편이나 생활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살펴보면, 먼저 조사대상자중 생활이 곤란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86.9%이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13.1%에 불과하나.

생활곤란의 원인으로는 '고정수입이 없다'가 5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앞서 보았던 직업활동에 있어서의 불안정성과 연관됨을 알 수 있다. 그외에는 '병이나 사고'가 12.2%, '일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못받음'이 10.8%, '학비부담'이 8.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현재의 생활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보면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을 잘사는 편이라고 생각한 응답자는 0.2%에 불과하고, 중간정도가



4.7%이며, 나머지 95%가 못사는 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표 6) 현재의 생활수준 평가

| 척도    | 1          | 2   | 3   | 4   | 5         | 6    | 7    |
|-------|------------|-----|-----|-----|-----------|------|------|
|       | 가장 잘사는 층 ← |     |     | 중간  | →가장 못사는 층 |      |      |
| 비율(%) | 0.0        | 0.1 | 0.1 | 4.7 | 9.3       | 26.4 | 59.4 |

#### 4) 생활수준에 대한 시계열적 평가와 전망

생활수준에 대한 평가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의 생활수준을 5년전과 비교할 때, '좋아졌다'와 '나빠졌다'가 공히 16.1%로 나타났고, '똑같다'가 67.8%에 달하고 있어 별로 좋아진 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현재와 비교한 5년후의 생활수준을 예상할 때에는 '나빠질 것이다'는 2.3%에 불과하고, '좋아질 것이다'가 52.3%에 달하고 있어 이들 빈민들이 미래에 대해 좌절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꼭 같을 것이다'도 45.5%에 달하고 있어 빈곤상태에 고착되어 있는 의식구조도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 5)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욕구

소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생활은 도시빈민이 자신과 가족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열한 소비생활은 노동력의 건강한 재생산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빈곤의 악순환을 매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도시빈민기구의 대부분은 생활의 곤란을 호소하고 있고 과거에 비해 생활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생활을 압박하는 요인은 저축과 부채의 원인에서 보듯이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근본적인 요인으로는 대부분 '안정된 수입의 결여'를 들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앞에서 언급한 직업활동의 불안정성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의 근본적 개선은 건전한 노동시장의 형성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시적인 실업 등으로 인한 소득중단이 만성적인 빈곤의 악순환(심리적인 좌절을 포함한)으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는 소득보장 프로그램들이 이들 도시빈민의 절실한 욕구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4. 주거문제 및 주거이동성

도시빈민의 주거형태는 이들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요소로서 대

부분 불량주택 밀집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주거의 문제는 우선적으로 주택의 소유형태와 주거수준의 문제로 나타나지만, 이들이 빈민밀집지역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주거이동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1) 주택문제

먼저 조사대상자들의 주택소유형태를 보면, <표 7>에서와 같이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30.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세 및 월세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나마 독채를 빌어쓰는 경우는 16.1%에 불과하고 50% 가까이 방 1-2개를 빌어서 생활하고 있는 형편이다.

<표 7> 주택소유관계 단위 : %

| 구 분 | 자기집  | 독채전세 | 독채월세 | 방전세  | 방월세  | 기 타 |
|-----|------|------|------|------|------|-----|
| 가 구 | 30.1 | 12.9 | 3.2  | 25.7 | 23.9 | 4.3 |

다음으로 주거수준을 보여주는 지표 중의 하나인 가구당 사용 방수를 보면 1개(52.2%)내지 2개(40.2%)가 전체의 92.4%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열악한 주거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다.

더우기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중에서 허가된 주택은 불과 21.1%에 불과하고, 나머지 78.9%는 무허가 (74.0%는 등록, 4.9%는 미등록)주택이므로 철거 및 재개발과 관련된 주거불안정은 매우 심각한 정도이다. 또한 이들 주택의 대지도 60%가 국공유지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사항도 재개발 및 현지개량 등의 주거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2)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

주거환경에 대한 빈곤지역 주민들 스스로의 평가는 다음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 그외 화장실이나 도로상태등의 주변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8> 주거환경 만족도 단위 : %

| 구 분     | 만 족  | 불 만 족 | 모르겠다 |
|---------|------|-------|------|
| 교육환경    | 28.1 | 56.1  | 15.8 |
| 화장실     | 43.4 | 54.9  | 1.7  |
| 도로상태    | 46.9 | 47.6  | 5.6  |
| 버스노선    | 56.1 | 38.3  | 5.6  |
| 직장과의 거리 | 35.8 | 36.9  | 23.8 |
| 상하수도    | 64.4 | 33.7  | 1.9  |

### 3) 주거이동에 대한 평가

다음으로 이들 도시빈민들의 주거이동상황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보자. <표 9>에서 지난 10년간의 이동상황을 볼 때 우선 '80년대에는 이농인구에 의한 빈민형성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지난 1년간 이사를 경험한 가구는 20%이내에 불과하지만, 5년 동안에는 50%정도, 10년 동안에는 약 70% 정도가 이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같은 동이나 같은 구로 이사한 경우를 포함하여 같은 지역에 거주한 경우를 보면, 1년동안 96.2%, 5년동안 84.8%, 10년동안 66.5%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동률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낮은 이동율은 빈민들이 빈곤지역을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역시 앞서 언급한 직업활동에 있어서의 고착성과 더불어 빈민지역에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향후 1년내에 이사할 계획을 가진 가구는 전체의 8.9%에 불과하다. 그리고 계획을 가진 경우에도 내집마련 등의 발전적인 동기를 가진 경우와 철거 등의 부정적인 동기를 가진 경우가 양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9> 과거 거주지의 분포

단위 : %

| 구 분  | 1년 전  | 5년 전  | 10년 전 |
|------|-------|-------|-------|
| 같은 집 | 81.1  | 51.1  | 29.1  |
| 같은 동 | 13.0  | 27.4  | 28.6  |
| 같은 구 | 2.1   | 6.3   | 8.8   |
| 다른 구 | 1.8   | 7.5   | 16.2  |
| 다른 시 | 1.3   | 4.7   | 9.3   |
| 농 촌  | 0.6   | 3.0   | 8.0   |
| 계    | 100.0 | 100.0 | 100.0 |

### 4) 주택정책에 대한 요구

1970년대를 지나면서 주택문제는 도시빈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활문제로 등장하였으며,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더이상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실정이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이들이 빈곤지역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점점 더 절실해져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이들의 희망사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즉

임대주택 건설과 보습이 5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는 현지개발에 필요한 자금지원(20.1%), 민간건설업체의 공급확대(10.9%), 집세보조(9.3%)순이다.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공급시 희망하는 주거조건 중 방의 수를 보면, 1개를 희망하는 경우는 3.9%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2개(32.0%) 내지 3개(58.7%)의 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 건설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투기(38.1%)와 보증금 및 월세부담(25.1%)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세입자 대책(41.8%)과 개량자금부족(23.6%)이 가장 큰 난관으로 인식 되고 있다.

## 5. 도시빈민의 사회의식

### 1) 사회정의와 기회구조에 대한 인식

도시빈민들이 우리사회의 분배구조의 정의와 형평성을 평가하는 내용들은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항 목              | 동 의  | 동의안함 | 모르겠다 |
|------------------|------|------|------|
| 일에 대한 경제적 대가가 적다 | 74.3 | 12.9 | 12.8 |
| 부자들만 잘살게 되어 있다   | 84.4 | 10.9 | 4.8  |
| 연줄과 배경있으면 출세어렵다  | 84.9 | 9.8  | 6.3  |

사회상에 대한 평가와는 달리 가난한 집 자녀들을 위한 대학교육등의 기회구조에 대한 평가는 <표 11>에서와 같이 적극적인 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평가가 엇갈리는 이유는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장래의 희망이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 항 목                 | 동 의  | 동의안함 | 모르겠다 |
|---------------------|------|------|------|
| 가난한집 자녀는 가난할 수밖에 없다 | 49.8 | 44.7 | 5.4  |
| 가난한집 자녀도 대학교육 기회있다  | 55.8 | 37.2 | 7.1  |

### 2) 자주적, 집단적 문제해결 의식

도시빈민들은 스스로 자기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은 부족하지만, 집단적이고

자주적인 문제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선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1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노력의 방법도 등반장 및 판청에 진정, 건의 하는 방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조직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10.4%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역조직이 있는 경우 참여한 사람은 54%에 이르고 있고, 그러한 지역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78.6%에 이르고 있어 자주적이고 집단적인 문제해결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노동운동등에 대한 견해를 예로 들 수 있다.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사람은 75.2%(45.2%는 전적으로 동의)에 이르고 있고, 반대하는 경우는 6.7%에 불과하다.

그러나 근로자의 집단행동이라는 방법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찬성(34.7%)과 반대(36.3%)가 양분되고 있어 방법에 대한 신중함을 보여주고 있다.

노점단속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도 순응(39.6%), 진정이나 청원으로 해결노력(37.7%), 집단행동으로 해결노력(22.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체적인 문제해결의 의지와 함께 그 방법에 있어서의 신중함을 보여주고 있다.

### Ⅲ. 맺음말

이상에서 도시빈민들의 실태와 욕구를 몇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직업활동에 대한 분석은 도시빈민의 노동력 실현과정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계열적인 분석을 볼 때에도 이러한 불안정성이 고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불안정성은 노동력 재생산과정의 취약성으로 그대로 연결되고 있는데 이는 소비를 중심으로 한 경제생활의 저열성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안정에 달려있지만, 그외에도 장단기적인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는 것이 요청되는 정책적 과제라 할 것이다.

주택문제는 이들의 소비생활을 압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이들 도시빈민들의 해결능력을 넘어선 문제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주거이동성을 보면 빈민지역에의 고착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결국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삶을 설계할 수 밖에 없는 이들 도시빈민들의 주거에 대한 욕구는 정부의

지원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과 현지개발사업으로 나타나지만, 그러한 정책들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이들 도시빈민들은 우리사회의 분배구조나 사회정의에 대해 매우 비판적, 비관적이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있음은 물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또는 집단적인 노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의욕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들을 통해 앞으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복지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시사를 받을 수 있는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빈민의 실태와 욕구에 대한 통일적이고 객관적인 분석들이 요구된다는 점.

둘째, 그러한 분석은 도시빈민의 생활공간 즉 소비공간에서의 형태 뿐만 아니라, 생산활동의 영역에 대한 고찰과 통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 참여민주주의의 원칙에서 이들의 자조노력을 지원하고 조직화할 수 있는 사회복지적 방향의 확립 등이다.